

[7] <http://www.fcc.gov/>

아프리카 교육분야의 ICT 정책 현황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박지훈
(T. 570-4435, heyds@kisdi.re.kr)

1. 개요

국제개발기구의 협력으로 형성된 InfoDev(The Information for Development Program)는 ICT를 통해 세계의 빈곤 해소, 기회 증진 및 경제성장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었다. InfoDev는 아프리카 53개국 교육현장에서 ICT 활용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아프리카 교육에 활용된 ICT 전략 및 정책, 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및 제한사항, 원조국의 참여 범위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아프리카 교육 분야의 ICT 정책과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아프리카 교육분야의 ICT 정책 현황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ICT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실행 혹은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정부기관들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ICT 필요성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도 이후 아프리카 53개국 중 많은 국가들이 ICT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가 ICT 정책 개발 추이(2000~2007)

국가구분	2000	2005	2007
ICT 정책을 실행중인 국가수	13	28	36
ICT 정책을 개발중인 국가수	10	15	12
ICT 정책이 없는 국가수	30	10	5
총 국가수	53	53	53

아프리카 각 국가간 교육을 위한 ICT 정책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나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아래와 같다.

1) 국가 차원의 ICT 정책은 교육을 위한 ICT 정책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2007년도 기준으로 국가 차원의 ICT 정책을 실행하거나 개발중인 48개국 중 39개국이 교육을 위한 ICT 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국가차원의 ICT 정책은 교육을 위한 ICT 정책을 개발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39개국의 ICT 교육 정책을 좀더 세분화 하면 별도의 개발된 ICT 교육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17개국, 별도의 ICT 교육정책을 개발 중인 7개국, 국가 ICT 정책에 교육관련 정책을 명시한 9개국, 국가 교육계획 및 국가 빈곤 해소전략 등의 타 계획에 교육관련 ICT 정책을 명시한 6개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대다수의 ICT 교육 정책은 2000년도 이후 개발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2000년도 이후 ICT 교육정책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활발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하였다.

3) 모든 국가차원의 ICT 및 교육을 위한 ICT 정책은 접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된 모든 ICT 교육정책은 ICT 도구와 인터넷의 접근, 젊은층과 일반시민을 위한 ICT 기술 개발, 교육자 훈련 등을 강조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교육 포털, 현지어로 제공된 콘텐츠 개발 등을 명시하였다.

4) ICT 교육정책 채택 과정에서 후원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UNECA, USAID, UNDP, AfDB, IDRC 등이 정책개발 과정에 목적, 결과, 평가 및 집행 전략 등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예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모리셔스와 르완다를 들 수 있다.

5) 교육을 위한 ICT 계획은 항상 실행되지 않는다

계획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원조 후원국과 민간 부문의 의지에 달려있다.

나. 아프리카 교육분야의 ICT 인프라 현황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통신 서비스 시장의 다양화 및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통신 인프라 및 정보접근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육기관에게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며 도시와 지방간의 ICT 인프라의 심한 격차가 존재한다. 지방지역에서의 전기 공급 및 ICT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및 대부분의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나머지 아프리카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컴퓨터 시설 부족과 높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료 등의 원인으로 ICT 활용이 상당히 제한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대학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전 교육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국가 연구 교육 네트워크(National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를 설치하고 있다. 모로코의 X.25 Gateway는 14개의 대학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부르키나파소, 리비아, 보츠와나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아프리카 일부 국가내 학교의 컴퓨터 보급률(2006)

국가명	총 학교수	컴퓨터를 보유한 학교수	컴퓨터 보급률(%)
이집트	26,000	26,000	100
가나	32,000	800	2.5
모잠비크	7,000	80	1.1
나미비아	1,519	350	23.0
남아공	25,582	6,651	26.0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교육을 위한 ICT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각국의 교육담당청에서는 학교내의 ICT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NGO와 원조 지원국이 교육시설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CT 정책은 고등교육을 위한 ICT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요구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비를 인상하여 인프라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 결 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가발전을 위한 IC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ICT 정책 및 교육 분야의 ICT 정책을 개발하여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특히 인프라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각 국가의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국가 ICT 정책 및 교육을 위한 ICT 정책을 개발하여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1] InfoDev/World Bank, Survey of ICT Education in Africa: A Summary Report,
Based on 53 Country Surveys, 2007.

[2] www.infodev.org